

증산의 풍수관(風水觀) 고찰

- 『전경(典經)』을 중심으로 -

박 상 만

글로벌사이버대학교 · 교수

I. 서론

II. 풍수 이론과 그 양태

III. 증산의 풍수관

IV. 결론

I. 서론

증산(龜山) 강일순(姜一淳, 1871~1909)께서는 근세 한국이 낳은 종교적 천재이자 선각자로서 역, 천문, 지리 등 전통사상에 대해서 뛰어난 식견을 보이셨고 당시 서세동점의 국제정세와 국가의 정황에 대해서도 통찰력을 지니셨다. 증산의 가르침은 후대 한국종교의 토양과 양상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에도 그를 신앙하는 종교인들이 적지 않다. 그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경전인 『전경』에는 그가 전통사상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당시 세상을 어떻게 진단하고 해결책과 비전을 제시하였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증산께서 전통사상 중 특히 풍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풍수는 한국인의 종교적 심성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여

은 세계관이다. 한국풍수는 도선(道詵, 827~898)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고려시대에는 국가의 정통성을 뒷받침하는 사상적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조선시대에도 도읍지와 능묘를 정하는 논리로 활용되었으며 조선후기에는 민간에 깊숙하게 스며들어 한국인들의 조상숭배 사상과 장례문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19세기 말~20세기 초에 활약하신 증산계서는 전래부터 내려온 한국인의 전통사상과 종교를 소화하였으며 이를 자신이 지향하는 종교적 이상과 그것을 위한 ‘천지공사’라는 작업에 활용하였다. 이 지점에서 증산계서 전통사상 특히 이 글의 주제인 풍수에 대한 이해에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본 글은 증산의 풍수관을 이해하여 전통적 풍수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이해의 양태를 드러내고자 한다. 그리고 그동안 증산 천지공사에 대한 연구가 전체적인 일반론에 집중하였는데, 이 글에서는 증산의 풍수관을 통해서 천·지·인 삼계개벽공사라 할 수 있는 천지공사의 각론인 지(地)에 대한 공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천지공사에서 땅에 대한 공사는 풍수적 논리와 떨어질 수 없기에 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것이다. 『전경』에서도 여러 풍수적 용어와 원리가 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는 천지공사 사상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목표를 두고, II장에서는 먼저 한국풍수 이론의 기본적 논의를 살펴보고 풍수라는 논리가 어떤 양태로서 한국이라는 공간에서 활용되었는지를 고찰해본다. 이런 양태를 살펴보는 것은 증산의 풍수 논리와 관점이 전통적 풍수이론과 어떤 차별이 있는지를 부각하기 위한 전제적 작업이다. 본 글의 핵심인 III장에서는 먼저 증산의 땅에 대한 관점을 고찰해보고 그런 다음 그의 풍수관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II. 풍수 이론과 그 양태

1. 풍수 이론

중국학자 C. K. Yang은 ‘Feng-shui는 악운을 피하고 좋은 운을 얻기 위해 산소(山所)를 잡는 일’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좋은 운은 천이 인간에게 부여하는 것이며 그 사상의 기반은 음양오행설이라고 지적하였다. 인간이 풍수에 의존하여 그 이론이 가리키는 위치와 방향에 의한 주거와 음택의 자리를 잡았을 때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해방되고 보이지 않는 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상을 낳게 되었다는 것이다.¹⁾ 최창조는 “풍수지리설이란 음양론과 오행설을 기반으로 주역의 체계를 주요한 논리구조로 삼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지리과학으로 추길피흉(追吉避凶)을 목적으로 삼는 상지(相地)기술학이다.”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이것이 후에 “효의 관념이나 사머니즘과 결합되어 이기적인 속신(俗信)으로 진전되기도 하였으나 기본적으로는 일종의 토지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²⁾ 최길성은 “풍수의 요체는 문자 그대로 바람 물의 자연조건의 힘에 의존하는 신앙이다. ... 즉 인간의 죽은 시체를 묻으면 자연에 묻힌 뼈가 생기를 타고 동기(同氣, 血族)에게 영향을 입힌다는 신앙이다.”³⁾라고 표현하였다. 무라야마 지준은 “풍수란 땅 속에 존재하는 지력에 의존하여 생활의 운명을 양호하게 하려고 하는 일종의 운명신앙(運命信仰)이다.”⁴⁾라고 정의하였다.

1) C. K. Yang, *Religion in Chinese Society* (Univ. of California Press, 1961), p.38, p.248, pp.263-265. 현세의 삶을 중요시하는 중국인의 사상과 음양과 오행론으로 분석하였다고 본다.

2) 한국적인 토지 자연관으로 분석하였다고 본다. 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 (서울: 민음사, 1993), p.32.

3) 무라야마 지준, 『조선의 풍수』, 최길성 역 (서울: 민음사, 1990), p.10.

4) 일본 문화의 특성인 ‘만신(萬神)사상’으로 조선의 풍수를 분석하였다고 본다. 같은 책, p.17.

즉 풍수는 동아시아 전통에서 땅에 대한 전통적 세계관으로 기 사상을 바탕으로 천지인이 서로 상응한다는 천인상관론과 음양오행론, 주역, 효 사상, 샤머니즘 등이 그 사상적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풍수의 구성 요소는 일반적으로 산(山), 수(水), 방위(方位)의 세 가지이며 여기에 사람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또 풍수 이론은 간룡법(看龍法), 장풍법(藏風法), 득수법(得水法), 정혈법(定穴法), 좌향법(坐向法), 형국론(形局論) 등 형식논리를 갖는다. 풍수에서는 산을 용(龍)이라고 하며 이 용을 보는 방법을 간룡법(看龍法)이라고 칭한다. 풍수의 목적은 땅 속에 흐르는 생기(生氣)를 감응 받음으로써 추길피흉(追吉避凶)할 수 있는 혈(穴)을 찾는 것인데, 먼저 산의 형세(形勢)를 살펴 생기가 모인 곳인 진혈(眞穴)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장풍법(藏風法)은 바람을 끌어들여 나가지 못하게 갈무리하는 방법이다. 『금낭경』에는 ‘葬者乘生氣也(장자는 생기에 의지해야 한다)’라 하였는데 이 중요한 기는 바람을 타면 흩어져 버리고 물에 닿으면 머문다고 하였다. 또 『금낭경』에는 장자가 생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술법을 바람과 물 즉 풍수(風水)라고 하였다.⁵⁾ 이 장풍법은 불어오는 바람을 거부하는 것[防風]이 아니라 불어 나가는 바람을 갈무리[藏風]하는 방법이다. 다른 말로 바람을 저장(貯藏)한다고 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법술이 장풍법이다.

득수법과 관련해서 『금낭경』에는 “풍수의 법술은 득수함이 으뜸이요, 장풍이 다음이다.”⁶⁾라고 하여 득수의 중요성을 밝혔다. 호순신(胡舜申)은 산과 물의 관계에 대해 “대개 산은 사람의 형체와 같고 물은 사람의 혈맥과 같은 것으로, 사람에게 있어 형체의 생장고영은 모두 혈맥에서 비롯된 것이다. 혈맥이 사람의 몸속을 흘러 다님에 있어 그 도수가 순조로우면 그 사람은 건강하고 튼튼할 것이요 그렇지 않고 절도를 잃게 되

5) 최창조 역주, 『청오경·금낭경』(서울: 민음사, 1993), p.72, “經曰 氣乘風則散 界水即止 故謂之風水”

6) 같은 책, p.76, “風水之法 得水爲上 藏風次之.”

면 그 사람은 병들어 망함이 자연의 이치인 것이다.”⁷⁾라고 하였다. 즉 산은 사람의 몸체이며 물은 혈액에 비유되기에 풍수에 있어 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혈법은 혈을 정하는 술법이다. 풍수에서 혈은 인체의 경혈과 비유되는데, 주지는 「산릉의장(山陵議狀)」에서 “소위 정혈의 법이란 침구(針灸)에 비유할 수 있는 것으로 스스로 일정한 혈의 위치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터럭 끝만큼의 차이도 있어서는 안 된다.”⁸⁾라고 하였다. 인체의 혈이 아닌 곳에 침이나 뜸을 두면 목숨을 잃게 되는 것처럼 생기가 응결된 혈을 찾지 못하고 장지를 삼으면 생룡이 사룡으로 변하거나 길국이 흉국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혈을 찾고 정하는 술법이 정혈법이다.

좌향은 등진 방위에서 정면으로 바라보는 방향이라는 말이다. 좌향법은 풍수의 기본요소인 산, 수, 방위, 사람에서 방위와 관련된 술법이다. 풍수는 음양설을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그 방위에 있어서도 역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그런데 풍수의 좌향론에 있어서 24방위의 각각 고정된 길흉이 배속되어 있지 않으며 원칙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례에 따라 방위상 길흉이 변화한다.⁹⁾

마지막 형국론은 지세를 전반적으로 개관하여 그 형세를 살피는 술법이다. 그러나 지세란 보는 입장에 따라 각각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이다. 형국론은 우주의 만물에는 이치, 기운, 형상이 있으므로 외면적 형상에는 그에 상응한 기운이 내재한다는 이론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최창조는 형국론은 술사의 주관적 관념이 작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풍수설의 근본적인 이론체계에는 잘 나타나지 않고 대부분 풍수의 응용서에 나타난다고 한다.¹⁰⁾ 반면 무라야마 지준은 풍수설은

7) 『호순신』, “蓋山如人之形體 水如人之血脈 人有形體生長枯榮一資於血脈 血脈周流於一身之間闕有度數順而不差則其人必康且強 逆而失節則其人必病且亡矣此自然之理.”

8) 「산릉의장」, “所謂定血之法 譬如針灸 自有一定之穴 而不可有毫釐之差.”

9) 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 p.167.

사물의 형세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물체의 유형의 영향에 따라서 인간의 길흉과 운명이 정해진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형세의 영향 관념은 『청오경』, 『금낭경』에서 이미 발달하였고 그 후 풍수설의 주요 관념이 되었다고 하였다.¹¹⁾

이러한 풍수 이론은 주장하는 학파는 당(唐)·송(宋)을 기점으로 하여 형세파(形勢派)와 이기파(理氣派)로 크게 나뉜다. 당대 양군송(楊筠松)은 『감룡경』을 지음으로써 산과 물의 형세를 중시하는 형세론(形勢論)을 주장하였고, 송대(宋代) 호순신(胡舜臣)은 『지리신법』이라는 저서에서 음양론(陰陽論)에 근거한 방위(方位)를 중시하는 이기론(理氣論)을 주장하였다. 주자는 풍수의 형세론을 받아들이고 이기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조선에서는 주자의 논의처럼 형세론만을 주로 인정하였다. 하지만 이기론도 중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없지는 않았다.¹²⁾

위에서 풍수론에 대한 간략한 골자를 살펴보았다. 풍수론은 한국인의 땅에 대한 관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관련된 종교문화를 형성하여왔다. 이 풍수 이론은 국가의 수도를 정하거나 거주지를 정하거나 집안의 묘 자리를 살피는 등 여러 가지 방향으로 활용되어왔다.

한국이라는 공간에서 풍수는 한국인들의 땅에 대한 이해와 이것을 기초로 한 인간관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에서의 풍수 이론의 양태는 대략적으로 표현하여 산천을 치유하는 비보풍수, 국가가 나라의 경영을 위해 사용한 국도풍수, 민간에서 민(民)이 추길피흉(追吉避凶)을 목적으로 가문·가정·개인의 발복을 위한 민간풍수의 형태로 나누어볼 수 있겠다. 이러한 한국적 풍수 이론의 양태를 염두하면서 증산의 풍수적 입장을 고찰해보기로 한다.

10) 같은 책, p.180.

11) 무라이마 지준, 앞의 책, pp.184-185.

12) 이화, 「조선조 풍수신앙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5), pp.45-47. 조 선은 주자(朱子)의 영향으로 좌향론보다 형국·형세론이 우세하였다고 본다.

2. 풍수 이론의 양태

한국 풍수의 비조는 도선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풍수는 비보(裨補) 풍수라고 잘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비보는 지리적 조건을 보완하는 인간적인 노력을 일컫는 것으로 자연과 문화의 상보적인 논리이다. 즉 풍수상 흉지(凶地)일지라도 적절한 수단과 방책을 통해서 길지적인 조건으로 바꿀 수 있으며 이때 사람이 자연의 영향을 조절하는 위상을 지니게 된다. 최원석은 이런 비보적 전통이 한국풍수론의 중요한 요소임에도 기존의 한국 풍수이론 체계에 속하지 않았다면서 한국풍수론 체계에 비보론을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다.¹³⁾ 최창조는 비보 관념이 중국 풍수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¹⁴⁾ 도선의 비보풍수의 한국적 독특성을 강조하였다.

도선의 비보풍수는 발복이 있는 명당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병든 땅을 고치려는 원리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즉 사람에게 병이 있을 때 의사(醫師)가 망진(望診)·진찰(診察)하며 치료(治療)하듯이 도선 풍수는 국토 전체를 망진하여 그 병세를 고치는 풍수인 것이다. 이때 치료의 원리는 비보(裨補)와 염승(厭勝)이다. 비보란 지리환경의 부족한 조건을 더하고 복돋는 원리이며 염승은 과한 여건을 누르고 기운을 빼는 원리이다.¹⁵⁾ 이를 다른 말로 침술(鍼術)의 보사(補瀉) 원리라고도 하는데, 기(氣)가 허(虛)한 곳은 보(補)하고 기가 과(過)한 곳은 사(瀉)해 준다는 것이다.

도선의 비보풍수의 사상적 연원에 대해서 그의 풍수에는 불교 특히 밀교적(密敎的) 요소가 많다는 견해¹⁶⁾, 밀교·풍수·도참이 어우러진 종교 문화라는 견해¹⁷⁾, 풍수의 방법은 불교이지만 근본은 풍수적이라

13) 최원석, 「한국의 비보풍수론」, 『대한지리학회지』 37-2 (2002), p.164.

14) 최창조, 『한국의 자생풍수론』 (서울: 민음사, 1999), p.61.

15) 최원석, 「비보의 개념과 원리」, 『민족문화연구』 34 (2001), p.125.

16) 서윤길, 「도선국사의 생애와 사상」, 『선각국사 도선의 신 연구』, 영암군, 1988.

17) 이진삼·박상만, 「도선의 비보사상 연구-풍수·도참·음양·오행·밀교사상 비교를

는 견해¹⁸⁾ 등이 있다. 이런 견해를 종합해보면 도선의 비보풍수에는 여러 사상적 요소가 발견이 되지만 전반적으로 풍수설의 입장이며 국토를 치유하는 비보적 원리를 담고 있는 한국적인 풍수임을 알 수 있다.

도선의 풍수지리적인 지식은 후대 문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고려 태조 왕건에게 전달되었는데 주로 진을 치는 법, 천시와 지리의 법, 산천을 조망하고 감통하고 보우하는 이치였다고 한다.¹⁹⁾ 풍수지리설은 도참사상과 연결되어 신라 말에 이르러 국가의 도읍을 정하는 근거 즉 국도(國都)풍수로써 기능하였으며 고려시대를 풍미하였다. 역사학자 이병도는 고려의 시대 구분을 풍수 모티브에 따라 분류하였다. 그가 고려 전기(10대 정종까지)는 ‘건국 및 통일 중심의 풍수’, 중기(11대 문종~24대 원종)는 ‘연기(延基) 및 순주(巡住) 중심의 풍수’, 그리고 후기(공양왕까지)는 ‘이어(移御) 및 천도(遷都) 중심의 풍수’로 고려조 전체를 구분하고 있는 점²⁰⁾에서도 고려시대 풍수론의 위상을 알 수 있다. 고려가 망하고 새로 조선이 건국되고서도 국가의 도읍에 관한 풍수적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즉 조선 초기 태조는 수도의 입지를 놓고 계룡산, 개성, 무악, 한양 가운데 한 곳을 선정하려는 논의를 하였던 것이다. 주요한 쟁점은 풍수지리이론이었으며 수도는 계룡산-한양-개성-무악-한양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한양으로 정해졌다. 풍수의 논의에 있어 조선은 고려식의 풍수를 그대로 전승하지는 않았다. 고려 시대에는 풍수가 정치적 정통성을 뒷받침하는 이념적 논리로서 국가 차원에서 적극 보호되고 이용되었지만 조선시대에는 풍수의 영역을 한정하며 유교에 귀속된 하나의 경국책으로써 위치 지웠다.²¹⁾

조선 후기로 가면 풍수지리가 거주지를 정하는 양택과 망자의 장지를 택하는 음택의 형태로 민간에 널리 유포되게 되었다. 조선 후기에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55 (2010).

18) 최창조, 『한국의 자생풍수론』 (서울: 민음사, 1999).

19) 최병현, 「도선의 생애와 나말여초의 풍수지리설」, 『한국사연구』 11 (1975), p.145.

20) 이병도, 『고려시대의 연구』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0). 한반도로 들어온 당나라 유학 선종(禪宗) 승려들은 밀교의 수행방법도 함께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21) 이화, 앞의 글, p.82 참조.

는 산송(山訟)이 크게 증가하여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는데 이 산송의 폐해는 당시 널리 퍼진 풍수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²²⁾ 풍수의 폐해에 대해 당대의 지식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풍수설에 혹하여 장사지낼 땅을 가지고 서로 송사하여 아버지를 장사지내는 자가 풍수설에 빠져 원한이 잇달고 송사가 얽혀 있다.”²³⁾, “간사한 말(풍수설)이 거침없이 퍼져서 천하가 미치듯이 송옥(訟獄)이 들끓고 인심이 날로 무너지게 되었으니 폐단의 혹독함이 어찌 선학에 비등할 뿐이겠는가.”²⁴⁾, “사대부로서 천장(遷葬)하지 않는 자는 열 가운데 두셋도 안 됩니다. … 투장(偷葬)이 그치지 않아 옥송(獄訟)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지사가 허황된 사람의 재물을 탐내는 까닭입니다. …”²⁵⁾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기도 하였지만 그만큼 풍수가 만연하였음을 보여주는 설명이다. 또한 민간에도 많은 풍수 설화가 유포되어 적덕을 통해 명당을 얻어 발복이 되길 염원하는 한국인의 종교문화적 세계관이 형성되었다.²⁶⁾

Ⅲ. 증산의 풍수관

1. 증산의 지관(地觀)

증산의 풍수관을 살펴보기에 앞서 그가 땅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증산께서는 이 세계를 천·지·인의 삼계로 보고

22) 김경숙, 「조선 후기 산송과 사회갈등연구」(서울대학위 박사학위 논문, 2002); 이 연구에 따르면 19세기 후반 들어 산송이 급증했으며 그 중심에는 주로 분산(墳山) 확보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23) 정약용, 『목민심서』, 형전 1조, “청송 하”

24) 홍대용, 『담헌서』, 내집 3권, 보유.

25) 『숙종실록』 22년 3월 4일.

26) 장장식, 『한국의 풍수설화 연구』(서울: 민속원, 1995).

있는데 이는 동양 전통의 천·지·인 삼재사상과 상통하는 입장이다. 증산께서는 자신이 삼계 대권을 주재하는 권능자이자 지고신(至高神)으로서 혼란에 빠진 천지를 광구하기 위해 삼계를 둘러보고 천하를 대순하였다가 인세에 강세하였다고 말씀하였다.²⁷⁾ 증산께서는 자신이 삼계를 구하기 위한 작업을 ‘삼계공사’²⁸⁾, ‘천지공사’²⁹⁾, ‘공사’ 등으로 표현하였다. 삼계의 하나인 지(地)도 곧 삼계 대권의 권능자이신 증산께서 구제하시는 대상으로서 위치 지워진다. 부연하자면 증산께서 “나는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치고 사람에게도 신명으로 하여금 기슴 속에 드나들게 하여 다 고쳐 쓰리라.”³⁰⁾ 또는 “이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 물샴틈없이 도수를 짜 놓았으니 제 한도에 돌아 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또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의 뱃속에 출입케 하여 그 체질과 성격을 고쳐 쓰리니 이는 비록 말뚝이라도 기운을 붙이면 쓰임이 되는 연고니라.”³¹⁾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地)도 증산께서 고치고 구제하시는 대상 세계인 것이다. 이는 구체적인 말씀으로도 나타나는데 “이제 해원시대를 맞이하였으니 사람도 명색이 없던 사람이 기세를 얻고 땅도 버림을 받던 땅에 기운이 돌아오리라.”³²⁾라고 하였다. 증산(甌山)으로부터 종통을 계승받으신 도주 조정산(趙鼎山)께서도 “토지를 해원하고 제민(濟民)하고자 안면도와 원산도(元山島) 두 섬에 간사지(干瀉地)를 개척하기 시작하셨도다.”³³⁾라고 하여 토지에 맺힌 원을 풀어주어 구원의 대상으로 삼았다.

증산께서는 이 삼계의 관계에 대해서 천인상관설과 상통하는 입장을 보였다. “사람들끼리의 싸움은 천상에서 선령신들 사이의 싸움을 일으키나니 천상 싸움이 끝난 뒤에 인간 싸움이 결정되나니라.”³⁴⁾라

27) 『전경』, 권지 1장 21절, 예시 1절 참조.

28) 같은 책, 공사 1장 3절, 예시 4절, 5절.

29) 같은 책, 행록 3장 53절, 행록 4장 29절, 공사 1장 1절, 10절 등.

30) 같은 책, 교법 3장 1절.

31) 같은 책, 교법 3장 4절.

32) 같은 책, 교법 1장 67절.

33) 같은 책, 교운 2장 35절.

고 하였는데 이는 즉 인간 세계 즉 현실 세계와 천의 세계가 서로 상관하여 작용하고 있음을 말씀한 것이다. 또한 인간과 땅은 서로 관련지어 작용하는데, 다음에 구절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① 또 상제께서 가라사대 “지기가 통일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제각기 사상이 엇갈려 제각기 생각하여 반목 쟁투하느니라. 이를 없애려면 해원으로써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이룩되면 천지는 개벽되고 선경이 세워지리라” 하셨도다. (공사 3장 5절)

② 상제께서 무더운 여름날에 신방축 공사를 보시고 지기를 뽑으셨도다. 종도들이 상제께서 쓰신 많은 글을 태인 신방축의 대장간에 가서 풍긋불에 태웠나니라. 며칠 후에 상제께서 갑질을 전주 김 병옥에게 보내어 세상의 소문을 듣고 오게 하셨도다. 갑질이 병옥으로부터 일본 신호(神戶)에 큰 화재가 났다는 신문 보도를 듣고 돌아와서 그대로 상제께 아뢰니 상제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일본의 지기가 강렬하므로 그 민족성이 탐욕과 침략성이 강하고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을 일삼느니라. 옛적부터 우리나라는 그들의 침해를 받아 왔노라. 이제 그 지기를 뽑아야 저희의 살림이 분주하게 되어 남을 넘볼 겨를이 없으리라. 그러면 이 강산도 편하고 저희도 편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전날 신방축 공사를 보았음은 신호(神戶)와 어음이 같음을 취함이었으니 이제 신호에 큰 불이 일어난 것은 앞으로 그 지기가 뽑힐 징조이로다”고 하셨도다. (공사 3장 31절)

③ 상제께서 어느 날 김형렬에게 가라사대 “서양인 이마두(利瑪竇)가 동양에 와서 지상 천국을 세우려 하였으되 오랫동안 뿌리를 박은 유교의 폐습으로 쉽사리 개혁할 수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도다. 다만 천상과 지하의 경계를 개방하여 제각기의 지역을 굳게 지켜 서로 넘나들지 못하던 신명을 서로 왕래케 하고 그가 사후에 동양의 문명신(文明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운(文運)을 열었느니라. 이로부터 지하신은 천상의 모든 묘법을 본받아 인세에 그것을 베풀었노라. 서양의 모든 문물은 천국의 모형을 본뜬 것이라” 이르시고 …(교운 1장 9절)

34) 같은 책, 교법 1장 54절.

위 내용을 살펴보면, ①에서는 인류가 제각기 반목하고 투쟁하는 원인을 ‘지기(地氣)가 통일되지 못함’이라고 말하였다. 즉 지기가 다르므로 인해서 각 지역마다 특수한 사상이 형성되고 그 사상마다 서로 시비가 생겨 인류도 반목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이는 곧 인류와 문화나 사상 등이 각기 다른 땅의 기운과 관련이 깊다는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다. ②에서도 이런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즉 일본의 침략적인 민족성이 일본열도의 강렬한 지기로 인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증산께서는 자신의 권능으로 일본의 지기를 뽑는 공사를 행하셨으며 일본 신호에 큰 불이 난 것이 지기가 뽑힌 징조라고 말하였다. ③에서는 천상과 지하에는 각각 신명이 거주하는데 지하신이 천상의 법리를 본받고 이를 인간 세상에 가르쳐주어 서양의 문명이 일어나고 발전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종합해보면 인간 세계의 현상과 땅이 상호관계를 맺고 있으며 세상의 여러 불상사가 지기와 관련이 있다는 설명이 된다. 그리고 이 ‘지기’라는 말씀에서 증산의 세계관이 풍수사상의 근간이 되는 기사상과 상통함을 살펴볼 수 있다.

풍수론에서는 땅을 인체에 비유하여 이해하는데, 『전경』에 구체적인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 위와 같은 전통사상과의 상관성을 고려할 때 증산의 세계관도 이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렇다면 기존의 전통적인 땅의 대한 입장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좀 더 천착해볼 수 있다.

① 선천에서는 하늘만 높이고 땅은 높이지 아니하였으되 이것은 지덕(地德)이 큰 것을 모름이라. 이 뒤로는 하늘과 땅을 일체로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교법 1장 62절)

② 사람들이 예로부터 “길성 소조(吉星所照)”라 하여 길성을 구하러 다니나 길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라. 때는 해원시대 이므로 덕을 닦고 사람을 올바르게 대우하라. 여기서 길성이 빛이 나니 이것이 곧 피난하는 길이니라. (교법 2장 60절)

③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 (교법 2장 56절)

①의 말을 보면, 증산께서는 그동안의 종교문화에서 하늘만 높이고 땅을 높이지 않았으나 이후로는 땅이 하늘과 함께 받들어지게 된다고 하셨다. 동양 전통에서 천(天)은 궁극적 실재이자 제천의례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지(地)에 대한 제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 실재로서의 천보다는 위상과 중요성이 낮았었다. 증산께서는 이 점을 지적하고 지(地)의 위상을 천과 동일한 정도로 끌어올린 것이다. ②와 ③은 인간의 위상이 천과 지에 못지않게 중요함을 말씀한 것이다. ②의 내용은 특히 조선말에 유행하였던 십승지설(十勝地說)과 관련이 있다. 십승지설이란 장차 변란이 있을 때 제시된 10군데 지역에 가면 화액을 면할 수 있다는 설로 하늘의 별자리가 지상의 특정 지역과 관련된다는 분야설(分野說)을 근간으로 한다.³⁵⁾ 실제 조선말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설을 믿고 해당 지역으로 이동을 하였다. 당대의 이런 문화적 흐름을 읽으시고 증산께서는 좋은 기운이 있는 땅을 찾는 것보다 덕을 닦는 윤리적 실천이 난을 피하는 상책임을 말씀하신 것이다.³⁶⁾ 이는 땅에 기운에 의존하는 피동적이고 운명론적인 태도보다 인간의 노력과 성찰을 중시하신 말씀으로 천존·지존보다 인존이 높다는 ③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런 인간의 노력이 주어진 자연적 조건보다 중요하다는 관점이 풍수론에서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호순신의 『지리신법(地理新法)』에서는 ‘정의(情意)’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풍수에 있어서 땅을 보는 데 있어서 형세 그 자체가 아니라 보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³⁷⁾ 또 취하고 버림을 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높은 것은 덜어

35) 십승지설에 대해서는 황선명, 「십승지 고」, 『종교와 문화』 5 (1999)를 참조할 수 있다.

36) 『대순회보』 132, pp.49-55.

37) 『금낭경』, “山之結地, 取其有情意而已. 亦猶人之相爲君臣, 特在於觀其情意而已. 故有形勢之地 … 皆有情意. 雖地有大小寬隘地不同, 其觀之要一在是也.”

내고 낮은 것은 덧붙이는 차원의 적극적인 공간창조의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³⁸⁾ 이처럼 이론적으로는 사람이 풍수의 한 요소로 적극적인 기능을 하지만 실제 문화화 된 풍수는 추피길흉의 기복적이며 운명론적인 특성을 강하게 나타냈다. 증산의 말씀에서는 이런 운명론적이며 기복적인 풍수적 입장과 땅에 대한 관점이 분명하게 탈각되고 있다.

요컨대, 증산께서는 동양전통의 기사상과 천·지·인 삼재의 천인상관 사상과 상통하는 입장을 보이시고 있지만, 그가 지(地)를 천과 동등하게 보고 인존이 천존·지존보다 높다고 하는 관점은 기존의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입장인 것이다. 스스로를 삼계대권을 주재하는 권능자이자 지고신이라 밝힌 증산께서는 지(地) 또한 천(天)·인(人)과 더불어 구원의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증산께서는 어지러운 인간 세상의 문제가 지기와 관련 깊다고 보셨으며 세상의 구원을 위해 이와 관련된 공사를 행하셨다고 한다.

2. 증산의 풍수관

위에서 증산의 지관에 대해 살펴보았고, 본 논문의 주제이기도 한 증산의 풍수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증산께서 풍수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증산께서 풍수의 형국론에 해당하는 혈명을 언급하시는 말씀에서 풍수에 대한 식견이 있으심을 알 수 있다. 증산께서 유불선음양참위(儒佛仙陰陽讖緯)를 통독하셨다는 말씀에서는 풍수뿐 아니라 유·불·선과 음양론 그리고 참위사상에도 일가견이 있으셨음을 짐작할 수 있다. 대순사상의 입장에서는 증산께서는 무상한 지혜를 갖춘 구천상제이시다. 그러므로 증산께서는 우주의 모든 이치에 통달하신 신인이시기에 풍수의 원리에 대해서도 그러할 것이라고 본다. 증산께서 말씀하신 풍수의 혈처와 형국론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8) 『호순신』, 「형세론」, “且, 辨之, 非徒可以定取舍, 安坐向而趨全避闕, 增高益下等事, 皆可於是施矣. 且, 猶既察見其人之善惡賢否, 然後以定親煮之分, 無不可也.”

① 상제께서 그 후 경석에게 “너의 선묘인 구월산(九月山) 금반사치(金盤死雉)의 혈음(穴蔭)을 옮겨 와야 되리라”고 명하시고 공우에게 복을 치게 하고 말씀하시기를 “이 혈음은 반드시 장풍(長風)을 받아야 발하리라” 하셨도다. 이때 이 도삼(李道三)의 아우 장풍(長豐)이 문득 들어오거늘 공우가 복채를 잠깐 멈추고 “장풍이 오느냐”고 인사를 하는도다. 이것을 보시고 상제께서 “이제 그만 그치라”고 말씀하셨도다. (행록 3장 41절)

② … 상제께서 그를 돌아보시고 묘소를 물으시니 바로 이곳이라고 그가 아뢰니 상제께서 또 묘형을 물으시니 “와우형(臥牛形)입니다”고 여쭙는지라. 말씀하시되 “그러면 소 우는 소리를 들어야 참이 되리라” 하시고 그 자리에 앉아 기다리시니 산 아래서 소 우는 소리가 나는도다. 병욱이 소의 울음소리를 아뢰니 상제께서 “먼 데서 들리면 소용이 없나니라” 하시고 한참 있으니 이상하게도 한 사람이 소를 몰고 묘 앞으로 지나가는데 소가 크게 우는도다. 상제께서 가라사대 “혈음(穴蔭)이 이미 동하였도다” 하시고…(교운 1장 12절)

③ 상제께서 어느 날 공우를 데리시고 태인 보림면 장재동을 지나는 길가에서 묘(墓)를 보시고 공우에게 이르시니라. “이 혈(穴)은 와우형(臥牛形)이나 금혈형(琴穴形)이라고 불리우니라. 그것은 혈명을 잘못 지어서 발음(發蔭)이 잘못되었느니라. 어디든지 혈명을 모르거든 용미(龍尾) 없이 조분(造墳)하였다가 명사에게 혈명을 지은 뒤에 용미를 달면 발음이 되나니라” 하셨도다. (행록 4장 9절)

④ … 상제께서 백지 한 장의 복판에 사명당(四明堂)이라 쓰시고 치복에게 가라사대 “궁을가에 있는 사명당 갱생이란 말은 중 사명당이 아니라 밝을 명 자를 쓴 사명당이니 조화는 불법(佛法)에 있으므로 호승예불형(胡僧禮佛穴)이오, 무병장수(無病長壽)는 선술(仙術)에 있으니 오선위기혈(五仙圍基穴)이오, 국태민안(國泰民安)은 군신봉조혈(群臣奉詔穴)이오, 선녀직금혈(仙女織錦穴)로 창생에게 비단옷을 입히리니 六월 十五일 신농씨(神農氏)의 제사를 지내고 공사를 행하리라. 금년이 천지의 환문(捍門)이라. 지금 일을 하지 않으면 일을 이루지 못하리라” 하셨도다. (행록 5장 15절)

⑤ 二十일에 모든 종도들이 속속 동곡에 모이니 김 형렬·김 갑철·김 자현·김 덕유·류 찬명·박 공우·신 원일·이 치화·이 공삼·최 덕겸 등이오, 채 사윤(蔡士允)은 처음으로 동곡에서 시좌하니라. 상제께서 류 찬명에게 천문지리 풍운조화 팔문둔갑 육정육갑 지혜용력(天文地理風雲造化八門遁甲六丁六甲智慧勇力)과 회문산 오선위기혈 무안 승달산 호승예불혈 장성 손룡 선녀직금혈 태인 배례전 군신봉조혈(回文山五仙圍基穴 務安僧達山胡僧禮佛穴 長城巽龍仙女織錦穴 泰仁拜禮田群巨奉詔穴)을 쓰게 하고 불사르셨도다. (행록 5장 21절)

⑥ 또 상제께서 장근으로 하여금 식혜 한 동이를 빚게 하고 이날 밤 초경에 식혜를 큰 그릇에 담아서 인경 밑에 놓으신 후에 “바둑의 시조 단주(丹朱)의 해원도수를 회문산(回文山) 오선위기혈(五仙圍基穴)에 붙여 조선 국운을 돌리려 함이라. 다섯 신선 중 한 신선은 주인(主人)으로 수수방관할 뿐이오. 네 신선은 판을 놓고 서로 패를 지어 따먹으려 하므로 날짜가 늦어서 승부가 결정되지 못하여 지금 최수운을 청하여서 증인으로 세우고 승부를 결정코자 함이니…” (공사 2장 3절)

⑦ 상제께서 각 처에서 정기를 뽑는 공사를 행하셨도다. 강산 정기를 뽑아 합치시려고 부모산(父母山)의 정기부터 공사를 보셨도다. “부모산은 전주 모악산(母岳山)과 순창(淳昌) 회문산(回文山)이니라. 회문산에 二十四혈이 있고 그 중에 오선위기혈(五仙圍基形)이 있고 기변(基變)은 당요(唐堯)가 창작하여 단주를 가르친 것이므로 단주의 해원은 오선위기로부터 대운이 열려 돌아날지니라. 다음에 네 명당(明堂)의 정기를 종합하여야 하니라. 네 명당은 순창 회문산(淳昌回文山)의 오선위기혈과 무안(務安) 승달산(僧達山)의 호승예불혈(胡僧禮佛形)과 장성(長城) 손룡(巽龍)의 선녀직금혈(仙女織錦形)과 태인(泰仁) 배례밭(拜禮田)의 군신봉조혈(群巨奉詔形)이니라. 그리고 부안 변산에 二十四혈이 있으니 이것은 회문산의 혈수의 상대가 되며 해변에 있어 해왕(海王)의 도수에 응하느니라. 회문산은 산군(山君), 변산은 해왕(海王)이니라” 하시고 상제께서 그 정기를 뽑으셨도다. (공사 3장 6절)

⑧ 상제께서 빗물로 벽에 인형을 그리고 그 앞에 청수를 떠 놓고 꿰어앉아서 상여 운상의 소리를 내시고 “이미두를 초혼하

여 광주 무등산(光州無等山) 상제봉조(上帝奉詔)에 장사하고 최수운을 초혼하여 순창 회문산(淳昌回文山) 오선위기(五仙圍碁)에 장사하노라” 하시고 종도들에게 二十四절을 읽히고 또 말씀하시니라. …(예시 66절)

⑨ 또 하루는 상제께서 공우에게 “태인 살포정 뒤에 호승예불(胡僧禮佛)을 써 주리니 역군(役軍)을 먹일 만한 술을 많이 빚어 놓으라” 이르시니라. 공우가 이르신 대로 하니라. 그 후에 상제께서 “장사를 지내 주리라”고 말씀하시고 종도들과 함께 술을 잡수시고 글을 써서 불사르셨도다. 상제께서 “지금은 천지에 수기가 돌지 아니하여 묘를 써도 발음이 되지 않으리라. 이 후에 수기가 돌 때에 땅 기운이 발하리라”고 말씀하셨도다. (공사 3장 20절)

⑩ 상제께서 종도들을 데리고 계실 때 “현하 대세가 오선위기(五仙圍碁)와 같으니 두 신선이 판을 대하고 있느니라. 두 신선은 각기 혼수하는데 한 신선은 주인이라 어느 편을 혼수할 수 없어 수수방관하고 다만 대접할 일만 맡았나니 연사에만 큰 흠이 없이 대접만 빠지지 아니하면 주인의 책임은 다한 것이로다. 바둑이 끝나면 판과 바둑돌은 주인에게 돌려지리니 옛날 한 고조(漢高祖)는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으되 우리나라는 좌상(座上)에서 득천하 하리라”고 말씀하셨도다. (예시 28절)

『전경』에 나타나있는 증산의 풍수에 대한 말씀은 풍수의 형국론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룬다. 『전경』에는 형국의 명칭 외 풍수의 경전이나 풍수 이론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언급은 잘 나타나 있지 않다. 위에서 보듯 증산께서 언급하는 형국 유형은 와우형, 금혈형, 호승예불혈, 오선위기혈, 군신봉조혈, 선녀직금혈, 동과혈, 상제봉조혈 등이다. 와우형은 큰 사람을 내고 자손대대 누워 먹을 수 있는 복을 지닌 형국이라고 한다. 소는 음식을 먹을 때 자주 누워 먹으며 성격이 온순하며 강직한 것과 관련된다. 그리고 와우형은 안산에 곡초(穀草)형의 사(砂)가 많이 쌓일 것을 요한다.³⁹⁾ 선녀직금형은 옥녀가 비단

39) 무라야마 지준, 앞의 책, p.215.

을 짜듯 이 자손이 끊임없이 귀한 인물로 배출되는 형국이다.⁴⁰⁾ 위의 형국과 관련해 『한국지명총람』의 내용을 조사하여 그 책에 나타난 풍수형국을 정리한 김광언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형국은 와우형으로 153회 나타났고 옥녀탄금형(玉女彈琴形)은 75회로 7번째, 옥녀직금형은 58회로 9번째, 노승(老僧)예불형은 9회로 48번째, 군신봉조형 역시 9회로 48번째, 선인관기형(仙人觀基形)은 3회로 95번째에 해당한다.⁴¹⁾ 오선위기형이나 상제봉조형은 『한국지명총람』에도 등장하였지만, 이런 형국들을 가지고 풍수 해석을 하신 것은 쉽게 종도들을 이해시키려는 의도로 여겨진다.⁴²⁾

풍수경전에서는 어떤 형국에는 어떤 유형의 사(砂)가 있어서 어떤 소응(所應)이 있다는 식으로 발복의 논리로 설명되어 있다. 하지만 증산계서는 앞서 그의 지관(地觀)에서 언급하였듯이 풍수의 길흉이나 발복의 논리를 넘어서서 삼계공사 즉 천지공사의 논리 안에서 풍수의 형국을 말씀하였다. 증산계서는 ‘산하의 대운을 거둬들이는 공사’⁴³⁾를 행하셨으며, ⑦의 말씀처럼 ‘각 처에서 정기를 뽑는 공사’를 행하였다. 산하의 대운 거둬들이고 각처의 정기를 뽑아 합치시려는 공사를 하실 때 먼저 부모산의 정기를 뽑으시고 그 다음 네 명당(明堂)의 정기(精氣)를 뽑았다. ④와 ⑤ 그리고 ⑦에서 이 때 부모산은 순창 회문산과 전주 모악산이고 네 명당은 회문산 오선위기형, 승달산 호승예불형, 장성 선녀직금형, 태인 군신봉조형이라고 하였다. 두 산을 부모산이라 하시고 우리나라의 많은 혈 가운데 네 곳을 네 명당이라 꼽으신 것은

40) 같은 책, p.222.

41) 김광언, 『바람·물·땅의 이치』 (서울: 기파랑, 2009), pp.34-35.

42) 증산상제 생존 당시에 민중들에게 쉽게 설명될 수 있는 풍수 용어였기에 활용하신 것으로 보인다.

43) 『전경』, 공사 3장 7절, “상제께서 여름 어느 날에 황 응종의 집에서 산하의 대운을 거둬들이는 공사를 행하셨도다. 상제께서 밤에 이르러 백지로 고깔을 만들어 응종에게 띄우고 ‘자루에 든 버를 끄집어내서 사방에 뿌리고 백지 百二十장과 양지 너장에 글을 써서 식혜 속에 넣고 인적이 없을 때를 기다려 시궁 흙에 파묻은 후에 고깔을 쓴 그대로 세수하라’고 명하시니 그는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니 별안간 인당에 쿵알과 같은 사마귀가 생겼도다. 응종이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버를 뿌린 것을 보았으나 한 알도 보이지 않고 없어졌도다.”

증산만의 독특한 관점이라 할 수 있다.⁴⁴⁾ 증산께서는 이 형국 또는 혈자리의 길지 여부나 발복의 차원에서 관심을 두신 것이 아니라 광구천하 하시기 위한 천지공사의 경영으로서 혈의 기운을 쓴 것이다.

네 명당 중 특히 오선위기형에 대해서 중요하게 언급을 하였다. 증산께서는 원(冤)의 역사의 첫 장이 단주(丹朱)라 하시며 단주로부터 해원(解冤)공사를 하셨는데⁴⁵⁾, ⑥에서 이 단주의 해원도수를 회문산 오선위기형을 통해서 하였으며, ⑧에서 동학의 교조 최제우를 초혼하여 장사하셨다. 또한 ⑥과 ⑩의 말씀처럼 오선위기형을 통해 우리나라와 주변 강대국의 형세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운을 바로잡는 공사를 행하였다. 즉 오선위기형이 가진 지기를 활용하여 천지의 원을 풀고 우리나라의 국운을 바로 잡는 일을 한 것이다.

증산의 풍수에 관한 전반적인 관점을 한국풍수의 양태(樣態)와 비교해보자. 앞에서 한국풍수사에 나타난 풍수론의 양태(樣態)에 대해 도선의 비보풍수, 국도풍수, 민간풍수로 구분해보았다. 증산은 위의 예문에서처럼 혈음, 혈명, 용미, 발음, 명당 등의 풍수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형국에 대해서도 식견을 보였고 지기라는 표현을 한 것에서 풍수에서의 일반 논리를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4) 부모산으로 회문산(回文山)과 모악산(母岳山)을 삼은 이유는 하늘의 운행을 ‘회문(回文)’이란 자기로 풀이하였다. 종도들에게 “二十四절을 읽히고 또 말씀하시니라…(예시 66절)”고 한 전경 구절에서 二十四절은 ‘24절기(節氣)’가 연상된다. 어머니 산의 한자풀이는 ‘모악(母岳)’이다. 모악을 어머니 산으로 보는 당시 호남인들의 생각과 맞물려서 이런 주장을 하신 것으로 보인다. 문자(文字) 풀이로 회문[(回文:자연(계절)의 문양(紋樣)을 돌아가는 것(廻)로 본 것이다.)]을 자연의 운행인 일 년 사계절(四季節)에 비유하였다. 바둑을 두는 다섯 신선 중 한 사람은 수수방관자라 하여 중시를 의미하면 인간 자신을 의미하였고 네 명의 바둑을 두는 신선을 사계절로 본 것이다. 또 유불선(儒佛仙) 3가(家)의 풍수 관점을 네 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고도 본다. 모악(母岳)은 어머니인 땅을 의미하는 산 이름이기 때문이다.

45) 『전경』, 공사 3장 4절, “상제께서 七월에 ‘예로부터 쌓인 원을 풀고 원에 인해서 생긴 모든 불상사를 없애고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는 공사를 행하리라. 머리를 굽으면 몸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인류 기록의 시작이고 원(冤)의 역사의 첫 장인 요(堯)의 아들 단주(丹朱)의 원을 풀면 그로부터 수천 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리라. 단주(丹朱)가 불초하다 하여 요가 순(舜)에게 두 딸을 주고 천하를 전하니 단주는 원을 풀고 마침내 순을 창오(蒼梧)에서 붕(崩)케 하고 두 왕비를 소상강(瀟湘江)에 빠져 죽게 하였도다. 이로부터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파멸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인간을 파멸에서 건지려면 해원공사를 행하여야 되느니라.’고 하셨도다.”

다만 풍수론의 운용에 있어서는 다른 입장을 갖고 계셨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비보풍수에서는 비보와 염승의 방법을 통해 땅의 기운을 치료하는 운용이고, 국도풍수는 국가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 도읍을 정하는데 사용된 풍수론이며, 민간풍수는 관 주도가 아닌 민이 가문의 평안과 발복을 위해 택지를 하는 것이다. 증산께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풍수론의 운용이 아닌 권능자이신 자신께서 진멸에 빠진 천지를 구하시려는 천지공사의 입장에서 산하의 대운과 지기를 거두어 통일하신 공사를 행한 것이다. 즉 증산께서는 세상의 분란이 지기의 분열로 인한 것임을 진단하시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였다. 어떤 면에서는 비보풍수와 관련성이 있지만 대상의 범위와 실행의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상은 땅 전체이며 그 방법은 지고신이신 자신의 권능으로 기운을 거둬 통일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삼계 대원을 주재하여 조화로써 천지를 개벽하고’⁴⁶⁾라는 말씀처럼 개벽과도 연관되어 장차 후천 선경의 건설로도 이어진다.

각론으로 들어가 구체적인 풍수론 관련된 언급도 전통적인 풍수관과는 다른 견해를 보였다. 먼저, 명당에 대해 풍수에서의 명당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말씀을 하였다. 증산의 신성하심을 믿고 두 사람이 증산께 명당을 바라었는데, 그들은 아들을 얻게 되었다. 증산께서는 아들을 얻었으니 명당을 받았다고 하시며 ‘선천에서는 매백골이장지(埋白骨而葬之)로되 후천에서는 불매백골이장지(不埋白骨而葬之)’라고 말씀하였다.⁴⁷⁾ 이는 명당이라는 것이 땅이 아닌 사람이라는 말씀이며 후천세계

46) 『전경』, 예시 17절.

47) 같은 책, 행록 1장 37절, “금산사 청련암(靑蓮庵)의 중 김 현찬(金玄贊)이 전부터 상제의 소문을 듣고 있던 차에 상제를 만나게 되어 명당을 원하니 상제께서 그에게 ‘믿고 있으라고 이르셨도다. 그 후 그는 환속하여 화축을 밝히고 아들을 얻었느니라. 그리고 김 병욱(金秉旭)이 또한 명당을 바라므로 상제께서 역시 ‘믿고 있으라고 말씀하셨도다. 그 후 그도 바라던 아들을 얻었느니라. 수년이 지나도록 명당에 대한 말씀이 없으시기에 병욱은 ‘주시려던 명당은 언제 주시나이까’고 여쭙니 상제께서 ‘네가 바라던 아들을 얻었으니 이미 그 명당을 받았느니라’고 이르시고 ‘선천에서는 매백골이장지(埋白骨而葬之)로되 후천에서는 불매백골이장지(不埋白骨而葬之)니라’고 말씀하셨도다. 그 후 얼마 지나 현찬이 상제를 뵈옵고 명당을 주시기를 바라므로 상제께서 ‘명당을 써서 이미 받음되었느니라’고 말씀이 계셨도다.” 조선시대에는 후손이 끊기면 절손지(絶孫地)라 하여 최악(最惡)의 땅지(亡地)로 여겼다. 풍수술사가 이런 점을 악용하여 ‘선패후길지(先敗後吉地)’라는 문서[산도(山圖)+ 예언]를 써 주었다.

에서는 백골을 매장하지 않고 장사한다는 것이다. 즉 장례의 풍습이 바뀌게 되며 땅의 기운과 발복을 중시하는 풍수에서의 지적(地的) 세계관에서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 변천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⁴⁸⁾ 이는 앞서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다’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그동안 묘자리를 써서 발음된 것은 제대로 된 발복이 아니라 는 말씀을 하셨다. 예시문 ⑨에서 지금까지 천지에 수기가 돌지 아니 하여 묘를 써도 발음이 되지 않았고 이후에 수기가 돌 때에 땅 기운이 발하리라고 한 것이다. 묘를 써도 발음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풍수에서 그동안 많은 명당과 길지를 설하고 그것의 소용에 대해서 알려졌지만, 증산께서는 이는 제대로 된 발음이 아니라고 본 것 같다. 즉 천하의 수기가 고갈되고 돌지 않아 묘의 발음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수기가 돌 때 땅의 기운도 함께 발한다는 것이다. 증산께서는 자신이 직접 이 수기를 돌린다고 하시며 공사를 행하였다.⁴⁹⁾

셋째, 지기의 발함은 도통군자의 창성과 관련된다는 점이다. 증산의 땅에 대한 공사는 거시적으로 삼계의 개벽과 후천건설과 관련되면서 도통군자의 창성과도 연관된다. 지기의 발음이 특정 가문이나 특정인의 발복에 영향을 준다는 차원이 아니라 많은 수행자들이 도통을 할 수 있는 기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즉 증산께서는 “도는 장차 금강산 일만 이천 봉을 응기하여 일만 이천의 도통군자로 창성하리라. 그러나 후천의 도통군자에는 여자(女子)가 많으리라.”⁵⁰⁾고 하시며 도통군자의 창성과 금강산의 기운이 상관한다고 하였다. 또한 “조선 강산(朝鮮江山)

48) 현대에 이르러 화장(火葬)을 한 후에 납골(納骨)이나 산골(散骨)·초목장(草木葬)을 사용하게 되었다. 증산의 풍수(風水) 장법(葬法)에 대한 혜안(慧眼)은 대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9) 『전경』, 공사 3장 21절, “또 어느 날 상제의 말씀이 계셨도다. ‘이제 천하에 물기운이 고갈하였으니 수기를 돌리리라’ 하시고 피란동 안씨의 재실(避亂洞安氏齋室)에 가서 우물을 대(竹)가지로 한 번 저으시고…” 풍수는 바람과 물에 대한 영향력이 우선이다. 수기(水氣)가 없으면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50) 여성인권 향상에 대한 이런 이야기는 당시 사회의 양반층으로서의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언행이었다.

명산(名山)이라. 도통군자(道通君子) 다시 난다.”⁵¹⁾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명산(名山)이기에 우리나라에서 도통군자가 난다고 말씀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증산께서는 풍수적 세계관의 기본 원리에 공감하였지만 그것의 운용에 있어서는 전통적 풍수의 입장과는 분명히 다른 지점에서 계셨음을 알 수 있다. 즉 풍수적 세계관을 자신의 세계관에 전유하여 새로운 의미 부여를 하셨다. 증산의 입장에서 다른 종교적 진리와 마찬가지로 풍수는 선천의 세계관으로 자신께서 기획한 후천세계와 그것을 여는 천지공사에 활용되었던 것이다.

IV. 결론

풍수에 대한 이론 분석은 학자마다 다르지만 풍수론은 음양·오행론, 주역, 기(氣) 사상, 추길피흉 등을 사상적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풍수의 구성 요소는 산, 수, 방위의 세 가지이며 여기에 사람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또 풍수 이론은 간룡법(看龍法), 장풍법(藏風法), 득수법(得水法), 정혈법(定穴法), 좌향법(坐向法), 형국론(形局論) 등 형식논리를 갖는다.

한국에서 활용 전개된 풍수이론은 비보풍수, 국도풍수, 민간풍수 등을 들 수 있다. 비보풍수는 땅을 치유하여 창생을 구제하는 논리로써 국도풍수는 국가의 경영책으로 도움을 정하는 논리로써 민간풍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지를 구하는 논리로 운용되었다.

조선말에 활약하신 종교적 천재이시자 선각자인 증산께서는 전통사상을 섭렵하였으며 이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종교적 세계관을 펼치셨다. 즉 증산은 전통적 세계관을 전유하여 이를 ‘뜯어 고치어’ 자신의 종교적 이상에 맞게 새롭게 재해석하고 창조하였다.

51) 『전경』, 권지 1장 11절.

특히 증산은 땅에 대한 기존의 견해를 극복하고 땅을 하늘과 같이 높인다는 새로운 입장을 표명하였다. 전통적 세계관에서 땅은 천보다 위상이 낮았지만 삼계대권의 주재자인 증산의 언설과 공사에 의해 천과 동등한 위상으로 승격하였다. 그리고 풍수적 세계관에서 사람은 땅의 기운에 영향을 받은 다소 수동적인 존재이다. 물론 비보풍수에서처럼 사람의 노력이 고려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풍수론의 전반적인 논의에서 사람은 피동의 위상에 있다. 증산께서도 과거 인간의 문화와 역사가 땅의 기운에 영향을 받은 것임을 말씀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인존시대(人尊時代)라고 하면서 인간을 땅의 조건에 영향을 받는 피동적인 입장에서 보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위상으로 위치 매김 하였다.

그리고 여러 풍수의 형국과 혈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다. 하지만 풍수의 길흉이나 발복의 논리를 넘어서서 삼계공사 즉 천지공사의 논리 안에서 풍수의 형국을 말씀하였다. 증산께서는 비보풍수, 국도풍수, 민간풍수론의 운용이 아닌 권능자이신 자신이 진멸에 빠진 천지를 구하시려는 천지공사의 입장에서 산하의 대운과 지기를 거두어 통일하신 공사를 행하였다. 즉 세상의 분란이 지기의 분열로 인한 것임을 진단하시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다. 이는 비보풍수와 관련성이 있는 것 같지만 대상의 범위와 실행의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풍수의 명당에서 있어서도 명당이라는 것이 땅이 아닌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후천세계에서는 백골을 매장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화장하여 장사하는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예언하였다. 이는 땅의 기운과 발복을 중시하는 풍수에서 지적(地的) 세계관에서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 변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풍수적 세계관을 소화하였지만 그 논리를 뛰어넘는 자신만의 종교적 세계관을 건설하는데 풍수논리를 사용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상세하게 다루지 못한 풍수형국에 대한 논의는 추후 심도 있는 연구가 있길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전경』

『대순회보』

『金囊經』

『雪心賦』

『靑鳥經』

『琢玉斧』

『山陵議狀』

『胡舜申』

『牧民心書』

『湛軒書』

김경숙, 「조선 후기 산송과 사회갈등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

무리아마 지준, 『조선의 풍수』, 최길성 역, 서울: 민음사, 1990.

서운길, 「도선 국사의 생애와 사상」, 『선각국사 도선의 신 연구』, 영암군, 1988.

이병도, 「고려시대의 연구」,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0.

이진삼·박상만, 「도선의 비보사상 연구-풍수·도참·음양·오행·밀교 사상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55, 2010.

이 화, 『조선조 풍수신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5.

장장식, 『한국의 풍수설화 연구』, 서울: 민속원, 1995.

최병현, 「도선의 생애와 나팔여초의 풍수지리설」, 『한국사연구』 11, 1975.

최원석, 「비보의 개념과 원리」, 『민족문화연구』 34, 2001.

최원석, 「한국의 비보풍수론」, 『대한지리학회지』 37(2), 2002.

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 서울: 민음사, 1993.

_____, 『한국의 자생풍수론』, 서울: 민음사, 1999.

황선명, 「십승지 교」, 『종교와 문화 5』, 1999.

C. K. Yang, *Religion in Chinese Society*, Univ. of California Press, 1961.

▪Abstract▪

A Study on Jeungsan's view of Pungsu:

Chiefly focused on Jeonkyung

Park Sang-man

Global Cyber University

Master Jeungsan understood a general view of Pungsu but actually he used the theory of Pungsu in his own religious perspective, transcending it. The theory of Pungsu is different. But the fact that it is premised on the principle of 'in and yang', the five-element principle, the Book of Changes, energy thought, and To chugi piyung, etc. is generally recognized. The three important elements of Pungsu are mountain, water, and direction or man. Pungsu has formal principles such as Gallyongbeop, Jangpungbeop, Deuksubeop, Jeonghyeolbeop, Jwahyangbeop, and Hyeongukron. etc.

In the late of Joseon, Jeungsan established a new traditional thought, understanding Bibopungsu, Gukdopungsu, Manganpungsu, etc. However, he reinterpreted them to be suitable to his religious ideal and let his followers understand them as well.

In particular, Jeungsan overcame the previous view on earth and expressed a new perspective to enhance earth up to the level of heaven. In the perspective of the traditional world, earth is lower than heaven, but Jeungsan made it a status equal to heaven. He

mentioned that in the past, the culture and history of man was influenced by earth's energy but today, at the age of man respect, he put passive man influenced by earth-condition on the more subjective and active status.

Even though he mentioned different Pungsu, Hyeongguk, and Hyeolmyeong, he expressed the shape of Pungsu within the construction of three worlds, the one of heaven and earth transcending good or ill luck or a favorable change in fortune. He practised the expedient of Pungsu from the stand of the construction of heaven and earth instead of the usage of Bibopungsu, Gukdopungsu, and Minganpungsu. He diagnosed that the division of the world is caused by the one of earth and tried to solve it. Moreover, he said that Myeongdang(a propitious site) must be the man-orientation rather than the earth-orientation. It means that Pungsu, stressing the energy of earth and turning one's luck, is changing into the world of man-orientation. In other words, Jeungsan diagnosed the world of Pungsu but he ultimately used Pungsu theory in building up his own view of religious world transcending such a theory.

Key words : Bibopungsu, Gukdopungsu, Minganpungsu, construction of heaven and earth, the era of man respect.

◎ 투 고 일 : 2015년 5월 31일

◎ 심사 기간 : 2015년 7월 24일~8월 5일

◎ 게재 확정 일 : 2015년 10월 6일